

第17回 司法試驗 座談會



司會：崔柄煜教授(本誌主幹)

柳聖秀 (首席, 70年 서울工大卒)	尹英根 (75年 서울法大卒)
安大熙 (最年少, 서울法大 3年在)	盧武鉉 (66年 釜山商高卒)
全孝淑 (73年 梨花女大卒)	康寶鉉 (72年 서울法大卒)

一. 어디서 얼마나?

○司：이번 司法試驗에서 合格하신 여러분들께 먼저 祝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中에도 이 座談會에 參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特히 경남 김해군 진영읍에서 오늘 이 자리에 參席키 위해 上京하신 노무현氏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座談會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受驗生活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經驗하신 것, 생각하신 것, 느끼신 것 등을 모두 털어 놓으셔서 受驗生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受驗動機부터 들어 봅시다. 柳聖秀氏는 工大 기계과 出身으로 더구나 首席 合格까지 하셨는데.....

考試의 길은 왜?

○柳：글쎄요, 별다른 動機보다는 司法試驗 自體가 젊은이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공부할 부를 차차 하다 보니까 과연 한번 해 볼 만한 것이구나 느껴져서 司法試驗만이 내가 갈 길이다라고 까지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司：工大에 다닐때 專攻科目에 對한 不滿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柳：大學 4年동안 다닐 때는 工大 自體에 對해 지극히 만족하고 다녔지요. 지금 생각하기에 그 4년이 損失이 아닌 가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意義가 있다고 봅니다. 大學을 卒業했다는 것은 社會에 나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資格을 賦與받았다는 意味로 제 나름의 解釋을 하고 專攻을 바꾸는데 큰 問題가 없었습니다.

○司：大學 在學 때에는 考試에 뜻이 없으셨나요?

○柳：네, 그때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在學時節에

좀 더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司：盧武鉉氏는 어떤 動機로 司法準備를 始作하셨습니까?

○盧：저희 큰 兄님이 考試를 約 2年間 準備했는데, 結局 應試는 한번도 못했지만, 그 兄님의 영향을 받아 高三때 擘연히 司法에 뜻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66年 10월에 豫備試驗에 應試·合格한 것이 具體的인 計劃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級 公務員 生活을 조금 하였는데 애당초는 그릇된 觀念에서 考試를 생각하였고 軍隊生活을 통해 느끼는 바가 있어 行政府보다는 職務의 獨立이라는 면에서 司法府 쪽을 擇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機會는 공부하면서 어떤 方向을 定하게 된 것 같습니다.

○司：다음에는 唯一한 女性 合格者인 全孝淑嬢의 動機를 들어 봅시다. 一般的으로 女性 受驗生이 극히 적은 것 같은데.....

○全：흔히 考試공부를 한다고 하면 혼탁한 社會에서 正義를 한번 具現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始作한다고 하는데요. 事實 저는 그런 動機를 가지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眞實하게 司法試驗을 치루려고 했던 것은 故黃允石判事 以來 17年間 女性 合格者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編輯者註：全孝淑嬢이 考試를 決定할 當時까지) 더구나 母校인 梨大에서 法科創設後 20年동안 하나도 考試 合格者를 배출해 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저를 이 길로 이끌어온 크나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나?

○司：그동안 지루하게 공부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체로 공부하신 期間이 얼마나 되는지요?

○盧：저는 軍隊 갔다 와서 試驗 준비를 始作했으므로 늦은 便이죠. 71年 5월부터 이번 2次까지 45個月가량 한샘이 되죠.

○司：순전히 司法試驗만을 爲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盧：저는 처음에 3級試驗 準備를 했는데 71年 3월부터 準備해서 5月 1日 3級 1次에 한번 合格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以後에는 司法로 方向을 바꾸었으므로 結局 그 期間 全部 司法만을 準備한 셈이 됩니다.

○司：柳聖秀氏는?

○柳：저는 司法試驗 準備를 爲해 民法總則을 제일 먼저 필치기 始作한 날이 71年 4月 3日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그 以後 3年 10個月가량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安：저는 大學入學式後 한달가량 지난 73年 4월부터 憲法 教科書를 보기 시작했고, 專門的으로 考試공부다 하고 시작한 것은 8月 여름 放學때 조금하다가 9月 10月 두달동안 좀 놀다가 11月 1日 1次公告가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1年 6個月정도 됩니다.

○司：그 前에는 전혀 法律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까?

○安：전혀 안 했습니다.

○司：기적적이군요. (一同 웃음)

○安：운이 좋았지요.

○尹：저는 2學年될 때 그러니까 71年 3月頃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2年만 인 昨年에 처음 應試해 보고 落榜하자

42241

5個月가량 공부가 안되어서 좀 늘었습니다. 結局 2年半쯤 되는 것 같습니다.

○全: 공부를 始作하기는 大學 2년부터 입니다만 별로 공부한 것은 없고, 본격적으로 始作한 것은 大學 3년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合格할 때까지 약 4년입니다.

○司: 康寶鉉氏는?

○康: 大部分의 法大生들의 경우가 그렇지만, 大學 2學年에 올라오면서 비로소 法書를 接하게 되는데, 이 때는 엄격하게 考試공부와 學校공부가 區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경우도 2學年 末인 겨울 放學때부터 始作해서 지금 卒業後 3년이 지났으니 5年 程度한 셈입니다.

○司: 공부한 期間이 多樣하군요. 1年 6個月부터 5년까지..... 다음으로 受驗공부는 어디에서들 하셨습니까?

어디서 공부했나?

○盧: 처음 공부를 始作할때는 집에서 한 1km쯤 떨어진 곳에서 했습니다. 저의 집이 진영에서도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소음이 별로 없는 파수원 안에 농막을 지어 놓고 공부를 했지요. 거기에서는 촛불을 켜 놓고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不便을 많이 느껴서 1年 程度 있다가 14회에 失敗하고 나서 절로 場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절은 너무나 멀어서 한번 내려 오는데 2時間씩이나 걸릴 程度이었습니다. 절에서는 적막을 이기기 힘이 들었고 1年쯤 있다가 다시 집과 파수원을 왕래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司: 그 적막함을 어떻게 달래셨습니까?

○盧: 結局 거기에서는 이따금 동료들과 산너머가서 막걸리를 마시곤 했는데 그 自體 굉장히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 됩니다.

○司: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解消되었다면 損失이라고만 볼 수 없겠죠. 康寶鉉氏는 어떻게 했지요?

○康: 제 경우는 期間도 길었지만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지 못할 程度로 많은 곳에 다녔습니다. 學校圖書館부터 절·하숙·私設圖書室 등 알려진 곳은 대충 다녔는데 結局 2·3個月에 한번씩 옮긴 셈입니다. 공부가 잘 안되거나, 지루할 때 即舍림프에 빠졌을 때는 移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 全孝淑嬢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全: 저는 在學時節에는 法政大學 8層에 있는 考試研究室을 利用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진지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3學年 때는 기숙사 도서관을 利用했고 4學年 2學期때 부터는 계속 考試班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食事を 밖에서 사먹거나 自炊를 해야 하는 不便이 있었지만 공부하는 學生들만 모여있었기 때문에 生活은 굉장히 安定되고 집 自體가 조용한 點 및 다른 잡다한 生活에서 벗어날 수 있는 點等에서 공부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司: 대체로 女學生들은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全: 他大學 女學生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梨大의 경우는 대개 考試班研究室이나 學校 中央圖書館에 나

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男子의 경우는 달리 절이라든가 다른데 房을 얻어서 공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尹: 저는 3學年 1學期까지는 주로 學校圖書館에서 공부했고, 그 後는 집에서 있었습니다. 절은 한번 들어갔다가 體質이 안 맞는 것 같아 보름 만에 나왔습니다.

○安: 저는 짧은 受驗期間이지만은 受驗場所는 6,7군데 되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하다가 자주 놀게 되므로 절에 들어갔고, 절에서는 3個月만에 권태감을 느껴 下宿으로 轉向했는데 下宿하던 時節에는 역시 권태감을 극복하기 爲해 2個月 程度에 한번씩 옮겼습니다. 特異했던 것은 試驗直前 마지막 週間に 수유리 조용한 Hotel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適合했던 것은 下宿집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司: 아주 짧지만 多樣하고 호화로왔군요(一同 웃음).

○安: 물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柳: 저도 여러군데 다녀 보았지만 제일 좋았던 곳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法大生들을 좀 接해 보자 하는 意味에서 절에 들어 간 적도 있었는데 그러한 所期의 目的은 達成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 外面할 수 없던 여러 가지 複雜한 問題들을 떠날 수 있어서 좋았으나, 눈이 나쁜 터이라 照明 問題가 신경 쓰이고 그 以外에도 生活을 自己가 다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時間的인 面에서 損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권태증 같은 것이 問題되어 2個月마다 房을 바꾸어 가면서 했습니다.

○安: 저도 집에 있을 때는 一週日에 한번씩 房을 바꾸었습니다.

○司: 똑같은 作業을 하니까 권태스러워서 그런거죠. 柳聖秀氏 말씀에 法



大生들을 接해 보기 위해 절로 갔다고 했는데 法大 出身 아닌 사람으로서 매우 좋은 着想 같습니다. 그런 着想을 하게 된 動機는?

○柳: 글쎄요, 공부를 하면서 내 自身 공부方法이 과연 옳은건지 하는 점이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法大圖書館에 들어가 보려고도 했으나 수위가 제지를 하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에서는 주지 스님께 特別히 부탁을 해서 法大生들과 4명이 함께 있어 보았지만 결국 큰 도움은 못받고 또 座席이나 자주 벌리게 되고 해서 녀 程度도 있다가 내려 왔습니다.

二. 1次試驗은 어떻게?

○司: 다음에는 1次試驗에 關係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1次試驗의 問題類型이나 水準은 이미 受驗生들이 仔細히 알고 있는 便이므로 此 이야기는 省略하고 初學者들이 고민하는 選擇科目問題에 關係 이야기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各自 選擇한 科目은 무엇이며 그것을 選擇한 理由는 무엇인지, 또 그 長短點等を 이야기 해 주십시오.

選擇科目은 어떤 것이 有利한가?

○康：在學時節 選擇科目으로서 가장 問題되었던 것이 第1 選擇이었는데 저는 社會法를 選擇했습니다. 그 當時만 해도 社會法와 國際私法이 半半程度이었는데 最近에는 國際私法이 압도적으로 많고 社會法은 한 教室에 10명이 넘을가 달까한 程度인데, 아마 이는 平均點數의 差, 공부해야 할 量의 差, 그리고 法의 安定性 등의 理由인 것 같습니다. 選擇科目間의 點數均衡 같은 것이 必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第2 選擇은 法哲學을 擇했고, 語學은 獨語에 自身이 없다는 單純한 理由로 英語를 選擇했습니다.

○司：이번에 國際私法 選擇은 2261名이고 社會法 選擇은 385名 이었습니다.

○全：저는 國際私法·法哲學·英語를 選擇했습니다. 特別한 理由는 없었고 선배들의 忠告에 따랐습니다.

○尹：저도 國際私法·法哲學·英語를 選擇했습니다. 獨語 點數가 좋다고 해서 바꾸려 했으나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負擔 때문에 英語를 繼續 選擇했습니다.

○司：法哲學 選擇은 2941名이고 平均點數도 가장 높군요.

○安：저도 달리 할 말이 없고尹선배님과 같습니다. 考試界에 실렸던 崔柄煜教授님의 司法試驗 길잡이가 選擇科目決定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柳：저도 國際私法·法哲學·英語를 擇했는데요, 事實 選擇科目이라 하지만 이제는 거의 모두가 그것을 擇해 固定되다시피 되어군요.

○盧：저는 考試界 統計資料를 檢討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科目으로

決定했습니다.

1次科目數가 많지 않은가?

○司：대체로 國際私法·法哲學等을 選擇하신 것 같군요. 다음에는 1次科目의 科目數에 關係 이야기를 해 봅시다.

○尹：科目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特別히 文化史·經濟原論은 너무 負擔이 갑니다.

○康：저도 同感입니다. 文化史·經濟原論은 第1 選擇, 第2 選擇 科目群으로 各各 돌리면 어떨까요?

○盧：제가 알기로는 1次科目이 늘은 것은 學歷制限撤廢에 따른 예비시험제도의 폐지와 關係된 것 같습니다. 論議가 많으나 제 생각으로는 獨學者를 爲해서라면 차라리 豫備試驗을 復活해서 그 方向의 공부길을 터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司：그러니까 學歷制限은 그대로 놔두고 豫備試驗을 復活함으로써 1次科目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盧：네 그렇습니다.

○司：좋은 이야기입니다. 學歷制限撤廢는 既往에 論難이 많았는데 이 點에 關係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1次問題도 公開하라

다음에 一次試驗問題의 公開與否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社會法에서 出題미스가 있었는데 그런 問題가 생길까와 公開을 안하는 것 같은데.....

○全：正確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一說에 依하면 한번 出題된 問題를 後에 다시 出題하기 爲해 公開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既出題問題가 事實上 雜誌等に 실리게 되니까 차라리 公開하는게 낫겠습니다.

에 있어서 責任을 느끼기 爲해서도 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저는 이번 社會法의 出題 미스 뒤늦게 밝혀졌을 때 꽤 놀랐지만 그 때도 關係當局이 窺쳐리 方案으로 밝힌 것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가시험인 법시험의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 한심한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된것을 防止하기 爲해서도 試驗問題는 試驗直後 公開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三. 2次試驗은 어떻게?

○司：다음에는 2次試驗에 關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受驗生들이 試驗場에서 意外의 問題를 接하고 당황하는 수가 많다는데?

意外의 問題가 나왔을 때

○康：제 經驗으로는 意外의 問題가 出題되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얼마나 침착하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 得點이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問題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비슷하게 準備를 했다는 事實을 念頭에 두시고 침착해야 할 것입니다.

○尹：이번에 商法 “貨換 어음”과 刑訴法 第2問 “公訴提起의 效果”가 모두 意外라고 하는데, 저 역시 商法에 당황했습니다. 결국 點數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安：저는 行政法에 自身을 갖고 있었는데 第1問 Case에서 당황했습니다만 教科書에 있는 것만 적었는데도 點數가 꽤 많은 것을 보면 實力이 있다는 것만 表示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柳：저의 경우 豫想 外의 問題로서 이 點 畧無체가 되었을

크게 당황했던 것은 國史의 “教育制度

.....”와 行政

法의 Case問

題, 商法 第1

問“株式...”이

었습니다. 結

果적으로 보

면 豫想外의

問題가 오

려 點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商法은

70點을 넘었습니다. 그런걸 보면 아

가

康寶鉉氏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같은 處地에서 試驗場에서 그 問題에

對한 草案을 얼마나 잡아서 어떻게 당

황하지 않고 꾸려 나가느냐, 더구나 法

典을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달린 것 같

습니다.

○盧：第14回에서 保險契約上의 告知義務가 나왔을 때 전혀 意外이었습니다. 워낙 못냈었는데도 50點이 나온 걸 보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적을 것이 必要합니다.

○柳：그리고, 豫想外의 問題의 경우에는 採點委員들이 꽤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安：제 경우 豫想問題를 맞혔다고 생각되는 憲法·國史·刑法은 點數가 저조하고 豫想外였던 民法·行政法은 오히려 點數가 좋더군요.

○司：出題委員은 이런 問題는 대강 잘 쓸 것이라 豫想하고 出題했는데, 受驗生들은 전혀 意外의 問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受驗生들은 採點評 같은 것을 많이



草案作成은 꼭 해야하나?

○司: 다음에는 草案作成에 關한 이야기들 들어 봅시다.

○康: 저는 平時에 主로 連續이었고 또 공부方法이 暗記에 重點을 두었으므로 問題를 받으면 Title이 大概는 외워져 있기 때문에 特別히 草案을 作成하지는 않는 習慣입니다.

○全: 저는 康寶欽氏와는 反對의 경우입니다. 暗記보다는 理解爲主이었고 問題를 쓸 때 冊에 있는 것을 제가 새로 構成해서 쓰는 便이고, 빠뜨리는 것을 可及의 防止하기 爲해 草案은 꼭 作成하였는데 내게 10分 程度이고 어떤 것은 15分 程度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本文쓰기에 疲乏 때가 많았읍니다.

○尹: 저도 草案을 꼭 썼는데 草案을 안 쓰면 작은 Title을 잊어 버릴 것 같아서 두 問題에 한 10分가량 作成했읍니다.

○安: 저는 글씨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草案 作成은 問題를 볼때 머리속에 다 집어 넣고 그 代身에 끝날때 6分정도 答案紙를 檢討했읍니다.

○柳: 저는 草案을 꼭 作成했읍니다. 글씨 速度에는 自身이 있었기 때문에 1問題에 10分씩 充分히 配當했읍니다. 잘 보아 두었던 問題의 경우에는 答案을 쓰면서 論點을 빠뜨리지 않기 爲해 可能한 限 細目次까지 되살려 적어 놓고서는 答案을 쓸 때마다 草案을 다시 보아 가면서 答案을 作成하는 方法을 取했고, 그리고 豫想外의 問題에서는 草案作成이 훨씬 重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問題가 要求하는 論點을 論述해

나아갈 方向을 確實히 하기 爲해 반드시 必要하고 또한 時間도 充分히 주어야 할 것 같읍니다.

○盧: 제 경우는 典型的인 問題는 草案을 作成하지 않고 豫想外의 問題나 綜合的인 問題에는 約 15分가량 草案을 作成했읍니다.

○司: 結局 이 草案問題는 平素의 공부 方法, 態度, 글씨 速度등 個性에 맞추어 採擇與否를 決定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答案分量에 關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答案分量은 몇장이나?

○康: 저는 速筆이며 더구나 草案도 作成하지 않기 때문에 答案分量이 엄청나게 많은 便입니다. 그러나 分量이 많다는 것이 결코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경우는 항상 分量이 많다 보니 이번 民法 占有者의 自力救濟 같은 것은 다른 科目에 비해 分量이 너무 적어 고심끝에 效果에 關해서 다른 것들을 서너줄 더 적었으나 結局 積極의 미스이었습니다.

그리고 科目에 따라서 例컨대 압축된 간결한 文章을 要求하는 民法等은 法律的知識을 간단명료하게 表示하는 것이 좋겠지만 刑事訴訟法이나 憲法 國史等에 있어서는 그 結論部分에 가서 人權이나 現實 言及에 充實하여야 한다는 意味에서 다소 分量이 넉넉한 便이 낫지 않을까 싶읍니다.

○全: 저는 석장 半 정도를 보통 基準으로 하고 약간씩 加減했읍니다. 글씨 쓰는 速度가 느리기 때문에 많이 쓸 수는 없었읍니다.

○尹: 저는 答案紙 分量이 적은 便에

합니다. 그러나 點數에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읍니다.

○安: 저는 量은 상당히 적었읍니다. 憲法은 두 問題 5장 밖에 안되었읍니다.

○柳: 제가 생각하기에는 2次 答案으로서 分量이 問題되는 경우는 結局 많은 分量의 것을 적은 量으로 어떻게 간결하게 써 놓을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答案을 3장반 이상으로 길게 쓰지 않으려고 努力했읍니다. 내게 3장 半 정도면 充分한 量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盧: 저는 草案을 作成하지 않는 경우는 5장 半 채우고, 作成하는 경우에는 時間關係로 조금 量이 작았읍니다. 혹은 時間이 남아도 性格上 검토는 하지 않았읍니다. 分量은 여기 모이신 분중 제일 많았는데, 성적은 제일 나쁜 것 같읍니다. (一同 웃음)

時間은 充分한가?

○司: 時間配當 때문에 困境을 겪으신 분은 없으신지?

○全: 저는 國史를 공부하면서 國史에 關해 흥미를 못 느끼고 더군다나 첫날 첫 時間이기 때문에 글씨도 잘 안써지고 항상 點數가 나았는데 이번에는 練習을 해 보려고 第1問의 教育制度에 關해 自身을 갖고 仔細히 쓰다보니 45分 밖에 남지 않아 結局은 第2問의 뒷部分을 다 쓰지 못하고 試驗紙를 빼앗기고 말았읍니다. 時間安配는 重要할 것 같군요.

○司: 國史以外는 어떻게 됩니까?

○全: 國史以外는 약 5分가량 時間이 남아 檢討까지 할 수 있었읍니다.

○安: 저는 時間安配에 신경쓰다 보니 答案을 잘 作成하지 못하는 便인데요. (一同 웃음) 이번 國史·刑訴의 경우 2問題 다 豫想했던 것인데 時間때문에 간략 간략 하게 줄이다 보니 刑訴는 다 쓰고 나니 30분이 남더군요 (一同 웃음). 그래서 餘論이라 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쓰다 보니 點數는 아주 나빴읍니다.

○康: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試驗 回數와 安配問題는 關聯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제 경우 처음 應試했을때 即 4學年으로 올라갈 때 憲法問題 “國會의 國法上 地位”에서 暗記가 大體로 되어



있는건데 時間 調節을 못해 자제히 쓰다가 그 다음은 빼고 하니가 文章 連結도 “그러나” “그러므로” 타령만 하게 되었는데……(一同 웃음) 回數를 더해 가면서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지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60분씩 내게 맞추어 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可能하다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읍니다만 공부할 때에 演習으로 答案 作成과 時間調節을 해 보는 것도 實質的으로 1회 더 應試한 經驗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읍니다.

○司: 그런건 우리가 普通 原稿를 쓰게 되는 경우에도 있는 일입니다.

○柳: 제 경우에는 글 身이 있었기 때문에 3장

쓴다 생각하고 時計를 큰 것을 가져 갔
습니다. 普通の 卓上時計인데 옷깃에다
매달고……(一同 웃음) 答案紙 分量과
時間을 봐가면서 答案作成速度를 조절
했는데, 모든 과목이 두 問題 다 쓰기도
5분내지 10분가량씩 남더군요.

○司: 역시 工學徒다운 얘기군요.
(一同 웃음)

○盧: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두 問題를 60분씩
配當하는 것 보다는 問題를 보아서 좀 큰
問題에는 조금 더 時間을 많이 配當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平時 教科書를
읽을 때도 分量에 신경 쓰면 좋겠지요.

○司: 具體的으로 受驗誌에 나오는
豫想問題分量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一同 그것 보다는 작겠다는 意見들)

○司: 결국 그만큼 쓰면 훌륭하다는
말인가요?

(一同 그렇다는 表情)

○司: 受驗生들은 豫想問題 나가는
分量이나 內容에 너무 겁을 먹지 않아
도 되겠군요.

다음에는 科目別로 살펴 봅시다.
憲法은 時事性도 考慮해서……

○康: 저 個人的으로는 憲法에 關해
계속 點數가 좋았습니다. 저도 그 原因
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번 問題의 경
우에는 最高得點을 받은 것 같은데, “宗
敎의 自由”에 關해서는 元來 宗敎에 觀
心이 좀 있어서 공부할 때부터 留意했
고 宗敎人의 政治活動問題에 좀 仔細히
적었다고 기억됩니다. “憲法 保障”에 關
해서는 憲法 守護者로서의 國民에 強調
를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憲法의 경
우는 항상 憲法 現實을 言及했던 點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尹: 昨年과 올해 問題를 보면 時事
性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柳: 豫想問題를 적중시켰던 것이
點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特히 “憲
法 保障”을 잘 봐 두었습니다.

○安: 豫想을 했던 것인데도 點數는
별로 좋은 便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盧: 憲法은 항상 點數가 나았는데
憲法을 안일하게 보았던 것이 敗因 같
습니다. 論理의 答案보다 힘의 答案을
살려고 努力 했습니다(一同 웃음).

“憲法 保障”에 關해서는 抵抗權이 實
定權化되어 있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 根據를 第8條에 두었는데 이는 金
箕範敎授님 冊에 있는 것 같습니다.

○司: 其他 憲法 공부를 하면서 留意
해야 할 點 그리고 答案에서 特記事項
같은 것은 어떤가요?

○康: 대개 주위를 보면 朴一慶敎授
님 冊이 大部分인데 제 생각으로는 內
容에서나 文章에서나 脫皮할 수 있다면
조금쯤은 特異한 答案이 될 것 같습니
다. 제 경우는 文鴻柱敎授님 冊으로 보
아서 약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特異했던
까닭인지 높은 得點을 維持했습니다.

○柳: 저는 康寶鉉氏 意見에 약간 反
對인데요, 一部受驗生들은 朴一慶敎授
님 問題集을 司試憲法에 있어서 Bible아
라고 까지 하는데 (一同 웃음), 제 나름
대로 獨創的인 答案을 作成할 能力이 없
는 사람은 朴一慶敎授님 問題集으로 무
난합니다.

○尹: 그래서 저도 朴一慶敎授님 冊
을 보았는데, 最近 金哲洙敎授님 冊으로
補充하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盧: 저는 2次試驗 3번 中 憲法에서
이상, 맞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柳: 憲法을 4번씩이나 바꾼게 잘못인 것
입니다. 基本書는 特別한 경우 以外에
아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年間은 金哲洙敎授님 冊을 보았
다.

○柳: 特히 獨學者나 法學을 專攻하
않은 사람은 民法·刑法等은 생소해
열심히 하고 憲法은 高校時節 一般社
에서 약간은 익숙하므로 소홀히 하기
전에 憲法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注意해야 되겠습니다.

民法 공부에는 충분한 時間配定을

○司: 다음에는 民法 이야기를 합시
우선 이번 問題는 어떻게 들 쓰셨는
요?

○盧: “民法上的 取消”에 關하여, 法
行爲의 取消 部分에는 아주 잘 썼으나
分行爲의 取消을 빼먹었고, 나머지
간략히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點數
56點 받았습니다.

○安: 民法은 元來 平素에 基本書에
實해서 그런지 點數도 좋았습니다.
시 問題集보다는 基本書爲主로 해야
할 것 같군요.

○康: 저는 民法이 항상 點數가 나왔
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한번 실속
하려고 버르곤 했는데 特히 기억남는
것은 15회때 “代理權 範圍”에서 制限을
제하고 範圍를 逸脫할 경우를 잔뜩 쓰다
가 科落을 맞은 것과 이번 경우 “占有者
의 自力救濟”에 關해 너무 量이 적은
것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效果로서
몇 줄 더 찾아 쓴 것이 積極的인 미스가
되어 또 科落인가 걱정했던 것 등입니다

1번 問題의 경우는 特히 公法上取消
· 完全行爲의 取消· 身分行爲의 取消에
關해 條文을 일일이 列舉해 줄 수 있
었습니다.

○盧: 저도 民法에서 60點을 한번도
넘어 보지 못했습니다. 15회 때 康寶鉉
氏와 마찬가지로 “代理權 範圍”에서 制
限을 전혀 빠뜨렸고 이번 “民法上 取消
에서는 序說에서 取消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法律行爲의 取消
만을 論한다고 하고 잘못 斷定을 내려
失手를 했고 “占有者의 自力救濟”는 敎
科書를 充實해 보아 困難을 안겨었습니
다. 點數는 안 좋았습니다.

○尹: 民法은 民訴와 같은 날에 보기
때문에 前날 주로 民訴를 보므로 民法이
항상 걱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이었고 民
法上 取消에
서는 相對方
保護 問題를
많이 썼는데
어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柳: 저는
1次試驗場에
서 야단을 맞을 정도로 民法 點數가 나했
습니다. 原因은 取消에 關해 法律行爲의
取消만을 썼던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盧: 저는 15회때 “代理權의 範圍”
에서 代理權의 範圍와 代理가 認定되는
範圍는 다르다는 것을 덧붙여서 좋은
點數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柳: 제가 한마디 더 부언 하겠는데
요. 저도 “占有者의 自力救濟”를 써 놓
고 보니까 아무래도 分量이 적어서 된

가 마음에 차지 않아 法典을 뒤적거리며 쓰다 積極의 미스를 한 모양인데요 역시 時間이 남는다고 이것 저것 잘 모르면서 쓰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司: 그래도 民法 平均點數가 中間程度는 되네요. 近來에 民法點數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民法 공부時 留意할 點이라던?

○柳: 年전에 工大를 卒業하고 合格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 공부方法이 基本法은 分量도 많고 得點이 힘드므로 소홀히 하고 나머지로써 補充하는 方法을 擇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民法을 重要視하고 時間配當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量이 많아 前날 一讀하기 爲해서는 平素에 그만큼 重視해야겠습니다.

○司: 내가 大學을 다닐때 어떤 民法 教授님이 民法은 法律공부를 하는 全時間의 3분의 1은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되는데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刑罰은 너무 점수가 나빠

○司: 다음은 刑法에 關해서.....

○康: 저는 이번 刑法點數가 가장 이상스럽게 생각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點數를 알아 본 대개의 親舊들의 共通의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統計에서도 62點 1名, 61點 1名으로 60點以上이 2名뿐인데 물론 採點委員이 적절히 評價하셨겠지만 점수가 지나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問題 自體에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상당히 滿足 하리만큼 썼는데 期待에 전혀 어긋났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

도 中금해서 도둑에 어떻게 써야 하고 採點評을 몇개 읽어 봐도 加重犯의 責任 限界의 具體的 答案法은 안 나와 있고 一般的인 答案成時 注意할 點만 言及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採點委員이 要求內容을 採點評에라도 실렸어야 할까 싶습니다.

○司: 刑法은 平均點數도 아주 군요. 밑에서 두번재입니다.

○柳: 康寶鉉씨 말대로 저도 點數 알아 보기 前까지는 刑法 때문에 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58點 에 안되었었습니다. 理由를 모르겠습니다.

○尹: 저도 刑法을 아주 잘 생각했는데 8科目 中 성적이 제일 나 입니다. 責任限界에서 무얼 어느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全: 저도 이번에 刑法點數가 나빴습니다.

○司: 전부 나빴군요.(一同 웃음).

○安: 저도 여러사람과 전혀 똑 같 니다.

○全: 저희 은사이신 李建鎬教授님 結果의 加重犯을 내셨다는데 具體的 內容은 잘 못듣고, 단지 한가지 教科 판을 大部分이 읽고 그 說을 따른 것 크게 눈에 떠었다고 하시더군요.

○盧: 저는 元來 刑法을 專攻으로 려고 할 程度로 刑法에는 아주 관심 많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果의 加重犯의 경우 二元說을 擇하 썼고 제가 집에서 작성해 본 것 보 훨씬 더 잘 쓴 것 같습니다. 단지 法 15條2項을 빠뜨렸고, 第2問은 法 136條1項만을 썼던 것이 약간 실수였

點數는 51點으로 가장 기대에 어 였습니다.

○柳: 採點評을 보니까 刑法 15條2項 안 써 주어서 點數들이 나쁜 것 같은 제 경우에는 刑法 15條2項을 썼음에 點數가 나쁜 까닭은 아직도 모르겠 니다.(一同 웃음).

○司: 이번의 統計를 보면 .50點 以上 點者 累計가 國史 270名, 憲法 249名 政法 533名, 商法 256名, 民法 215名 訴 289名 刑法 191名, 刑訴 553名입 니다. 역시 刑法이 제일 나쁘군요.

그러면 刑法공부에 關해 助言해 주실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康: 저는 刑法總論은 Subnote를 作 했는데 刑法總論 部分만은 Subnote 作成이 必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全: 刑法은 처음부터 끝까지 學說 對立이므로 어느 한 教科書만으로는 不 足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여러 參考 資料를 많이 利用했습니다.

○柳: 저는 獨學者로서 刑法에서 가 장 애를 먹었는데 各論은 劉基天教授님 冊으로 充分하고 總論은 갈수록 이해도 어려워지고 해서 혼났습니다. 總論部分 은 저도 Subnote를 만들어 보는 方法 까지도 취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內容 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한 어설픈 Subn ote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盧: 一般的으로 基本書單卷主義가 支持받고 있는데 刑法總論만은 單卷으로 不足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用語까지 다른게 많으므로 여러 卷을 끌고루 봐 두어야 될 것 같고, 刑法에서는 目的的 行爲論을 비판하는 경우 그 根據를 적 은 教科書가 없는 데에 受驗生들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 저는 問題에 따라 便利한 體系를 取하는 方法을 擇했습니다.

行政法은 無難했다

○司: 다음에는 行政法 차례입니다. 이번에 問題가 쉬워서 그랬나요, 點數 가 아주 좋습니다.

○康: 行政法 問題에 별 이야기는 없 구요. 한가지 行政法 時間이 끝나니까 某大 某教授가 平時에 自由裁量行爲에 關한 Case를 꼭 낸다고 하셨다는 이야 기가 떠 들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問題 點이 있을 것 같습니다.

○盧: 저는 憲法에서 힘 으로 밀고 行政 法도 힘으 로 밀려고 했 습니다. (일 동 웃음)



自由裁量行 爲에 關한 Case에서 教科書一般論은 안 쓰고 問題 自體풀이에 힘을 기울이다가 點數가 안 좋았습니다. 行政法에 關해 서는 出題範圍가 항상 中금해서 行政法 下卷 뒷 部分을 어느 程度 準備할 것인 가 항상 애를 먹었습니다.

○柳: 財政·軍政 같은 部分은 제 경 우는 平素에는 안 하다가 試驗 直前에 는 겁이 나서 Title이라도 보곤 했습니 다.

○司: 더 이야기 하실 분 안계십니까? 行政法은 모두 점수가 좋아서 그런지 할 이야기가 적은가 보군요.

商法은 意外的 出題가

○司: 다음에는 商法을 살펴 봅시다. 商法이 前에는 點數가 상당히 좋았는데

近來에는 點數가 안 좋은 것 같군요.

○尹: 15回부터 계속 어음·手票法에서 한 問題씩 나오는데 이러한 點에서 어음·手票法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保險·海商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康: 제 생각으로는 1번 問題는 상당히 훌륭했고 2問은 많이들 때 놓은 問題인데 이 問題에서 失敗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柳: 제가 商法에서 最高得點을 한 것같은데 “貨換어음”의 問題는 平素에 注意해 두었던 問題여서 우선 써 놓고 보니 별 問題點이 없었고, 第1問은 처음에는 方向이 안잡혔으나 法典을 뒤져서 草案을 잡다보니 무엇을 써야 할 것 인지 方向이 잡히더군요. 그래도 역시 商法 걱정을 상당히 했는데 結果적으로 는 自身을 가졌던 刑法은 안 좋고 自身이 없던 國史와 商法은 點數가 좋았습니다

○安: 저도 第2問을 豫想했던 탓인지 第1問을 크게 잘못 쓰고도 點數는 그러저럭 되었습니다.

○全: 저는 항상 商法이 點數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例解를 보고 공부했는데, 1問은 資料를 補充해 놓은 덕을 보았고 2問은 重視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도 있었습니다.

○盧: 몇해 前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람들 中에 그때만 해도 商法은 問題集이 가장 整備된 科目으로 例解 한 卷으로 充分하다고 했으나 이제는 教科書도 充實히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柳: 이제는 例解만 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굳이 例解 單卷을 고수하자

면 아무래도 잡지에서 많이 補充을 놓고, 類題로 나온 問題에도 應답을 理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全: 그래서 곧 改訂版이 나온다고 합니다. (一同 웃음)

民訴法은 新訴訟物論에 注意를!

○司: 다음엔 民事訴訟法 이야기할까요.

○康: 第1問 “裁判의 意義와 種類”는 막상 쓰려고 하니가 內容을 잘못 쓰겠더군요. 역시 實務을 알아야 좀 더 自身있게 쓸 수 있는 問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온 問題集에는 3가지 分類 以外에 全部裁判·一部裁判의 分類도 있어 저도 그걸 적었는데 最近 冊엔 안나왔더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盧: 民訴法 第2問은 만족하게 했구요, 第1問에서는 저도 막상 쓰기 힘들더군요. 그리고 民訴나 刑訴는 平時에 條文을 많이 익혀 受驗場에서 條文 찾기에 不便을 안 느낄 程度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全: 제가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역시 民訴法 아닌가 싶군요. 이번에는 受驗場에서 冊을 앞에 내다 놓으라고 할 때도 계속 冊을 보았는데 맨 마지막으로 본 것이 裁判의 意義와 種類인데 무척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第2問은 잘 쓴 便이고 點數는 60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司: 60點 以上이 이번에 24명이군요.

○尹: 民事訴訟法은 合格 後에도 계속 보아야 할 重要한 科目이므로 既往得 點科目을 定하려면 民事訴訟法을 定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저는 民訴法은 특히 考試界 같은 雜誌에 실린 教授님 論文을 꼭 읽었는데 理解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柳: 앞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特別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轉付 命命 및 推尋命命을 맡은 命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決定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이것은 判決이라고 하는 積極의 미스를犯하고 나서(一同 웃음), 이것이 혹시 科落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61點이 넘었습니다. 第2問은 平素에도 留意했던 問題이기도 했습니다만 點心시간에 잠깐 보고 쓸 수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처음 始作할 때 法大 친구가 “刑訴法은 구라科目이고, 民訴法은 暗記科目”이라고 했는데 역시 民訴法은 많이 외우면 點數가 잘 나올 것 같군요.

○安: 역시 공부期間이 짧은 것은 訴訟法에서 드러 나는 것 같더군요. 點數가 안 좋았습니다.

○康: 民訴法에서는 新訴訟物論 理解와 答案이 關聯될 때에는 약간씩 加味해 주는 것도 必要할 듯 싶었습니다.

刑訴法問題는 重複된 감이 있어

○司: 民訴에 關해서는 그만 하고 刑訴로 넘어 가겠습니다. 刑訴는 이번에 點數가 좋군요. 平均點數도 두번째로 좋습니다.

○柳: 저도 刑訴法이 64點으로 期待대로 나왔습니다.

○盧: 刑事訴訟法은 저는 꼭 點數가 나왔는데요. 공부할 때부터 分量이 작아 경시했던 원인 같습니다. 이번에는 64點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問題가 出題된 덕분 같습니다.

○安: 問題는 익숙했으나 問題集만을 보았던 터이라 크게 自身을 못 가졌습니다.

○康: 저는 이번 “公訴提起의 效果”에서 公訴不可分의 原則을 어느 限度까지 다루어 줄 것인가에 한참 고심 했습니다.

○全: 刑法에서 人權 같은 것 별로 안 썼는데도 항상 點數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試驗에서는 맨 마지막 날 刑訴時間에는 건강이 아주 안 좋았고, 內容적으로는 第1問과 第2問이 重複되는 部分이 좀 있는데 出題에서 그런 點도 신경을 쓰셔서 여러 군데에서 受驗生의 實力을 評價 했으면 좋겠습니다.

國史는 史實보다 흐름을 파악해야

○司: 마지막으로 국사에 對한 이야기를 좀 하죠.

○柳: 國史를 68點 받았는데 發表前까지 科落을 걱정 했습니다. 第2問은 自身있게 내려 썼지만, 第1問 “教育制度”는 自身이 없어 여러 點에서 미스가 많았기 때문에 科落을 걱정 했었는데 後에 알고 보니까 年代라든가 個個의 事項이 틀리더라도 教育制度의 흐름만 적절히 쓰면 된다는 採點評을 읽고 역시 點數 좋은 理由가 그런데 있지 않았나 생각 되더군요.

○全: 저는 國史에는 恨이 많습니다. 國史를 공부할 때에는 法律 공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많이 고심



했고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國史에서 항상 時間配定을 잘못 했기 때문에 點數가 나빴습니다. 國史에서는 教授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史實의 나열보다 意義가 重要한 것 같습니다.

○康: 제 경우는 워낙 國史 實力이 없어 國史에 열심을 기울이다 보니 點數가 계속 좋았습니다. 저는 敎養課程部時節 배운 「社會科學概論」이란 冊을 Summarize 해서 利用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特別 國史學에 있어서 어느 事件을 보는 觀點의 差異들을 알 수 있었고 그 性格 같은데 觀心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要컨대 資料같은 것 많이 利用했다면 좋겠습니다.

○尹: 國史는 特別 問題가 포괄적이므로 暗記科目은 아닌 것 같습니다.

○柳: 저도 동감입니다. 다른 科目은 問題集으로도 좋겠지만 國史만큼은 問題集을 보아서는 오히려 困難할 것 같습니다.

○全: 國史 點數가 나쁜 사람으로서 我田引受格이 될지 모르겠는데 國史가 다른 試驗에서는 1次로 되었는데 유독 司法試驗에서만 2次로 남겨 둘 必要가 있을까요.

○安: 저는 國史教授님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國史 答案은 社會科學 答案과는 달라 序論·結論이 必要없다고 하던데요. (大部分 反對意見들)

○盧: 國史에 있어서는 原因·結果· 영향·現代的意義等 쓸 것이 너무 많더군요. 이번 경우에도 時間이 너무 모자라 에 먹었습니다. 史實은 별로 重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安: 그러나 國史는 다른 社會科學과는 다르므로 그렇다면 조금 問題가 있지 않을까요.

四. 3次試驗의 要領은

○司: 이상에서 대체로 8科目을 즉살피 보았습니다. 다음은 3次試驗 이야기 좀 하죠. 우선 3次試驗은 어떤 姿勢로 臨했으며 어떤 걸 물어 보았는가 또 어떻게 대답 했는가를 이야기해 주시죠.

○全: 진 흥일점으로 되니까 대기장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분위기에 눌렀습니다.

憲法에서는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上下關係에 對해서 물으시더군요. 그外 몇 개 더 물으시고 나중에는 응용문제들 한 개 물으시는데 對答을 잘못하니깐 나카라고 그러시더군요. 나오면서 朴一慶教授님이 웃으시는 것을 보고 맘을 놓았습니다.

民法에서는 婚姻에 있어서 當事者에 錯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對答을 잘 못하니깐 유도해 주시더군요.

刑法에서는 竊盜와 占有離脫物橫領罪에 관한 Case를 물어 보셨는데 對答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姦通罪의 存置與否에 關係 물으시길래 그런대로 見解를 말씀 드렸습니다.

○尹: 이번에는 3次試驗이 늦었는데 相當히 不安하므로 일찍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次試驗은 그렇게 걱정할 것 없고 어떨 때는 教授님이 質問하실 때 네네 對答만 하면 되기도 합니다.

憲法에서 學園의 自由를 물으시었고 民法에서는 占有와 準占有의 差異를 물

으셨고 刑法에서는 §227와 §228의 關係를 물으셨습니다.

○安: 3次공부를 한다고 마음 먹었지만 막상 잘 되지도 않고 해서 不安한 마음으로 3次에 臨했습니다.

憲法에서 外囑선박에 세관원이 어떻게 자유스럽게 들어 갈 수 있느냐를 묻고, 民法에서는 결혼을 自由로 할 수 있는 나이를 물으시고, 刑法에서는 情交가 賂物이 되느냐고 묻고 賂物이라면 추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뒷 部分은 對答을 못했습니다.

○柳: 저는 3次에 臨하기 前에 對答이 틀리더라도 當落에 影響이 없고 단지 公손한 態度로만 대하면 된다는 豫備知識을 갖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3次도 시험인 만큼 교수님들 앞에 서기까지는 초조하고 긴장 되더군요.

憲法에서는 制限하에서 制限할 수 있는 基本權의 種類와 그 內容은 무엇인가? 그린펠트 根據法인 도시계획法에 是補償이 規定되어 있지 않은데 憲法과 關係는 어떻게 되나? 民法에서는 工場을 새로 지었을 때 動産인가 不動産인가? 그리고 財團抵當·工場抵當에 關係 물으셨고, 刑法에서는 事實의 錯誤에 關係 물으시고, 여판에서 A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B가 주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 §30Ⅲ 豫備·陰謀와 各則에서 豫備·陰謀를 든 경우 兩者 關係는 어떻게 되나 등이었습니다. 결국 3次는 교수님에게 公손한 태도로 저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좀 더 공부 하겠으니라고 對答하면 비록 內容이 틀리더라도 結果에 影響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盧: 2次 發表가 나니까 3次 準備는 막상 잘 안되더군요. 제 경우는 學歷이 高卒이라 同情의인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憲法試驗室에 들어 가니까 먼저 最終 學歷을 물으시더니 수고했다고 모두 칭찬해 주시더군요. 尊屬殺害의 違憲判決에 對해 물으시고 끝날 때에 朴一慶教授님이 法律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法律曹인이 되는데 있어 모두가 아니며 人間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꽤 인상에 남습니다.

民法時間에는 取消와 解除의 區別에 關係 그리고 取消와 撤回의 區別에 關係 물으셨고 刑法에서는 共犯의 錯誤問題를 물으시고 또 現行 刑法上 財産犯罪가 몇 개인가 물으시는데 對答을 못했습니다.

○柳: 지금 盧武鉉氏께서는 高卒이라는 Title이 붙어서 同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Title이 붙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五. 受驗生에게 주는 말

○司: 끝으로 한마디씩.....

legal mind를 길러라

○柳: 저는 처음 法律書籍을 잡았을 때 理解가 되지 않아 혼났습니다. 저처럼 法學을 專攻하지 않은 분들의 共通 現象이라 보는데, 可能하면 大法에 가서 강의들 들어 이른바 Legal mind를 갖추는데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더욱 권할만한 것은 受驗雜誌와 各種 資料라든가 論文·豫想問題 및 模範答案等을 參照하시라는 것 입니다.

두가지 부락

○康: 우선 基本書나 問題集의 理解가 어느 程度된 다음에는 必히 資料를 蒐集·整理하는 作業이 必要합니다. 그것을 한 卷에 整理해서 보게 되면 時間浪費도 막을 수 있고 基本書의 不足한 點을 補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14회에 首席落榜을 했는데 결국 3년이 지난 이번이야 붙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拳銃을 쏠때 첫 발은 명중했지만 똑 같은 거리에서 똑 같은 자세로 똑같이 쏘지만 第2發은 빗나갈 수도 있다는 忠告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우수한 成績으로 落榜하신 분은 결코 자만하지 말고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柳: 저는 15회에서 1회에 落榜하여 무척 傷心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어떤 수모감이 이번 合格하는데 큰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安: 저는 人間成長期와 考試공부時期가 겹쳤기 때문에 特히 애로點이 많았습니다. 제 경우는 運이 相當히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일찍 始作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못붙었더라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하루 10시간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 꾸준히 했고 또 공부할때는 集中의으로 했습니다.



굳은 信念으로

○尹: 考試는 精神의인 面이 重要한 것 같습니다. 꼭 붙어야 한다는 信念이 必要하며 健康, 經濟力等 諸 條件中 不利한 것은 精神力으로 극복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女子受驗生들에게

○全: 저는 女子受驗生에게 드리는 말을 하겠어요. 一般的으로 考試는 힘들다는 定評이고, 더구나 女子의 경우는 더욱 힘들 것이므로 司法試驗에 臨할 때는 결심이 굳은가 생각하고 또 한번쯤은 自身을 돌아 보고 決定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女性의 法曹界進出은 하루 빨리 많아져야겠습니다.

또 女子受驗生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法大生으로서도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분투하시는 女子受驗生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當局者들께서는 受驗場에서 女子를 위한 化粧室問題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不便했어요.

獨學徒에게

○盧: 저는 軍隊를 갔다 왔고 結婚도 했고 더구나 獨學이라는 不利한 面이 놓여 있었습니다.

獨學者로서 공부하면서 정말 隣接分野의 공부의 必要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受驗情報는 各種 受驗雜誌를 参照했는데 이 方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結婚은 安定을 가져다 주었고, 軍隊를 마치면서 가진 새로운 각오도 合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말로 大學을 다닐 수 있는 立場이라면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大學에 들어가 그 분위기에 接해 볼 것을 권합니다.

○司: 장장 4時間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以後에도 기회 있을 대로 助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一同 박수)—끝—

行政高試 合格記

뜻으로 본 受驗活動과 過程



成均館大 行政學科在學 宋 在 聖
第16回 行政高試合格

一. 出發

滿35개월 20일간의 現役服務, 그 후 一年餘의 방황.

1973년 새해를 맞고 보니 벌써 마음보다 육체는 5년을 앞질러 25세를 넘고 있었다. 가늘게 깃들기 시작하던 한 줄기 초조함이 새해들어 커다란 不安으로 급한 成熟을 하면서 두 눈은 正體形成의 계기를 찾아 번뜩이기 시작했다.

“나의 存在를 確認해야 한다”

“自我實現을 爲한 어떤 契機를 創造해야 한다”

強한 欲求가 솟구칠수록 現在의 無能力 狀態는 比例의으로 나를 葛藤상태로 몰아 넣었고 급기야는 白日夢속에서 欲求를 즐기는 主觀의 幻像犯으로 스스로를 몰아 가고 말았다. 링컨이 되었다가, 루벨러가 되었다가…….몬로를 애무하다가도 PK를 기다리는 고올 키퍼의 눈을 헤가지고 눈앞에 탁친 마음에 안드는 諸 여진을 猛打하고 있었다.

3월에 접어들면서 초조함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제는 생각한 후에 行動하는 原則을 固守하기에 心身이 함께 지친 나는 行動하면서 생각하는 變則을 行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그 동안 「아트바이트」로 굵어 모은 몇 푼을 가지고 數卷의 책을 구입한 후 혜화동의 私設도서관에서 行政高試의 高地를 向해 과감한 첫 발을 내 디딘 것은 3월15일이었다. 장비 점검도 못한 채 떠난 長道였으나 물어 물어 큰 길로만 달리기로 마음먹고 나니 오히려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2年, 돌이키자니 오히려 괴로움과 부끄러움이 더한 길을 되돌아 보고자함은 投入과 產出間의 어떤 函數的 對應關係를 發見함으로써 애초의 目標으로 오늘을 환원시켜 그 기여도를 確認함과 同時에 同道의 學兄들과 심금을 터는 對話를 나눔으로서 한층의 위로를 주고 받고자 함이다.

二. 第14回 行試에의 打診

「忍耐는 意志의 試驗이다.